

## “ 생명보다 귀한 인자 ”

(Your steadfast love is better than life)

### ■ 이종윤 원로목사

자식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머무는 동안 수다한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는다.

#### 광야를 성소로

압살롬의 배신으로 양에서 쫓겨나 광야에서 표류해야 하는 다윗의 심정은 황막하기가 광야와 같고, 메마르기가 사막과 같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다윗의 기도는 목마른 사슴이 물을 갈망하듯이, 굶주린 사람이 먹을 것을 구하듯 더욱 간절하기만 하다. 그곳은 성소가 없는 시온산의 성소에서 먼 거리에 있는 광야였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 구애받지 않는다. 전일 성소에서 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광야에서도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뵈오려 손을 들고 기도하며 자신의 입술로 주를 송축한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이다. 다윗은 압살롬의 손에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를 그리워하고, 영혼이 주를 갈망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 위협과 곤고한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 번데기에서 나비가 나오는 과정을 자세히 관찰한 어느 과학도가 바늘구멍만한 구멍을 뚫고 나오기 위해 꼬박 하루가 걸린 것을 보고 힘든 과정을 도와주고 싶은 생각으로 다른 번데기의 구멍을 가위로 넓혀서 나방이 쉽게 구멍을 벗어나게 했다. 영롱한 날개를 가지고 팔랑거리며 날아갔지만 쉽게 구멍을 벗어난 나방은 제대로 날지도 못하고 빛깔도 곱지 않았다. 간신히 나오는가 했더니 얼마 못가 죽어버렸다. 다윗에게 곤난의 날들이 없었다면, 모세에게 광야 40년이 없었다면, 수많은 시편은 없었을 것이고, 가나안의 영광은 없을 것이다. 기쁨과 승리를 위해서는 그에 비례하는 수고와 고통, 희생이 있어야 한다. 다윗은 곤고한 중에 감사를 한다. 그의 주제는 「생명보다 주님의 인자(사람)하심이 낫습니다(귀합니다)」 목숨보다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한다. 사랑에 미쳐본 사람은 이 말의 뜻을 알 것이다. 체면, 소득, 명예, 건강도 사랑 위해 포기한다. 민족적 · 국가적 곤난과 개인적 아픔이 있었으나, 하나님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하는 수준 높은 성숙한 신자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다윗은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한다.

#### 황무지를 제단으로

화목제는 하나님께 제물을 봉헌하고, 그 제물 중 자기들의 몫을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다. 이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수직적인 면과, 가족 간의 교통하는 수평적인 면을 확인한다. 다윗은 전날 그가 맛보았던 화목제를 회상했지만, 그가 머물고 있는 광야에서는 제단도 제사상도 없기 때문에 옛날의 경험을 맛 볼 수 없었다. 그러나 다윗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침상에 눕게 되면, 주님 생각에 밤 가는 줄 몰랐고, 별처럼 떠오르는 지난날의 은총을 연상하다가 과거의 보호는 미래 구원의 보장일 것이라는 생각에 감사를 억제할 수 없어, 주님의 품속에 와락 파고들면, 주께서 그의 오른팔로 다윗을 감싸 안아 주심으로서 다윗은 제단 아래서 기쁨지고 맛있는 화목제 물을 배불리 먹는 듯한 충족감을 연일 경험하므로 황량한 황무지를 제단으로 바꾸어 놓은 셈이다. 하나님과 교통 중에 있는 자는 항상 영적인 희열의 충족을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은 전수(全數)요, 최상의 소유자시며, 최고의 가치이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는 세상에서 더 찾을 것이 없게 된다.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by God, with God, in God) 만족케 하신 하나님 사랑을 감사하자.

뒷면으로 계속 ≡

앞면에서 계속

#### 내일을 만들어 사는 오늘

오늘과 상관없는 내일은 없다. 내일은 오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법이다.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내일이 좌우되는 것은 만인에게 통용되는 천리(天理)이다. 다윗은 황량한 광야에서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신실하게 살기를 힘쓴다. 그의 대적들이 영원한 침묵 속에 소멸되어 버릴 내일,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즐거워하며, 승리를 드높이 자랑하는 내일을 갖기 위해서이다. 황량한 광야를 성소로, 삭막한 불모지를 제단으로 만들어 산 사람이다. 그리고 곤고한 오늘을 탓만 하기보다, 오늘의 곤고 중에서도 내일을 만들어 산 사람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이 있다면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삶 즉 응답이려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기 때문이다.

-한국장로신문 [제 1621호] 2018년 12월 1일 발책-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resider : Deacon Kichan Yoo] [Preacher : Pastor Euichang Kim]
* Call to Worship .....	John 4:24 ..... Presider
* The Apostles' Creed .....	Congregation
* Doxology .....	1 .....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	Deaconess Seung Kyung Baeck
Hymn .....	2 .....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	Psalm 32:1-11 ..... Presider
Welcome/Fellowship .....	Congregation
Offering .....	Congregation
* Offering Hymn .....	50 .....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	Presider
Anthem .....	Congregation
Sermon .....	"Blessed Person" ..... Pastor
* Hymn .....	263 (I hear the Savior Say) ..... Congregation
* Benediction .....	Pastor
* Lord's Prayer Song .....	635 ..... Congregation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b>우리의 비전 (vision)</b>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	---	---------------

<b>부 목 사</b> 서명철 장석남 조영영 <b>교육전도사</b> 김은숙 박미라 최승원 <b>선 교 사</b> 강아급주하나,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혜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스프로토바로이,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재을박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병연김희경, 우상식김경옥, 이삭, 비스타파. 사지, 예녹(인도), 정상진홍성임(필라우),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경(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 · 오정녀(케냐), 김중일백순애(타이완), 필리핀, 프로산토, 수레시, 수바씩, 이정엽, 알로르, 비사누보도, 보디소프, 린룸, 수란존(방글라데시), 박명성, 김태식, 윤영모, 이금순, 김영일(군선교)
---

	천국시던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b>서울교회</b>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b>이 종 윤</b>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 “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소서 ”

### ■ 시 90:1-17

어느 때인들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이 없지는 않지만, 특별히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세모가 되면 세월의 유수함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2018년 올 한해는 서울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참으로 복잡하고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고통의 시간들과 교회의 아픈 사건들도, 이 한 해가 저물 듯 우리에게서 속히 떠나갈 것입니다. 시편 90편은 모세 자신이 파란만장했던 지난날을 돌아보고 그의 인생이 지는 해같이 저문 때, 인생의 세모에 드린 기도이며 신앙고백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1절)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것과 그들을 두시려고 에덴을 창설 하셨음을 상기하게 해 줍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안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라고 한 3절 말씀은 창세기 3장 19절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고 한 말씀과 상응합니다. 또 5절에서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라는 표현은 아담의 후손들이 홍수 심판을 당하는 등 죄의 값은 사망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모든 인생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70-80년을 수고와 슬픔만으로 살다가 죽어가면서, 수고와 슬픔의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또한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12절)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시편 39편 5절에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뼉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 이나이다” 라고 한 말씀처럼 사람의 일생이 한 뼉 ‘손 넓이만큼’ 뿐임을 깨달아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라고 한 것처럼 그날들을 허비하지 말고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알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이 무엇인가를 13-17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7절에서는 유한하고 연약하여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인간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거두시고 그 대신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애굽의 노예 히브리인으로 태어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120세까지 곤난 받는 민족의 해방을 이끄는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그런 모세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생의 무상함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고백합니다. 인생의 허무는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며, 또 인간이 하나님께 도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미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며, 비록 범죄 하였을 때이라도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12절). 한 해를 보내며 우리가 드러야 할 기도입니다. 자기의 날을 계수할 줄 안다는 것은 인생의 덧없음과 불확실성, 그리고 항상 죽음의 때를 생각하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 맺는 말

자기의 날을 계수할 줄 알 때 우리는 영원을 소망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자기의 날을 계수할 줄 알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지혜를 얻습니다.  
 자기의 날을 계수할 줄 알 때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쌓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자기의 날을 계수할 줄 알 때 우리는 세월을 낭비하지 않는 지혜를 얻습니다.  
 자기의 날을 계수할 줄 알 때 우리는 말기신 일에 충성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자기의 날을 계수할 줄 알 때 우리는 인내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의 날을 바르고 성실하게 계수함으로써 지혜의 마음을 얻어 이 세상이 아닌 영원을 소망하고 경건의 훈련을 쌓으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세월을 낭비하지 않으며 말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 서명철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 주 일 예 배

## 찬 양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I 오전 9시	조원영 목사	최형열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장석남 목사	차도훈 장로
III 오후 2시	서명철 목사	인 도 자

오후 5시 인도: 서명철 목사, 설교: 김의창 목사

입례송 Prelude .....	오르가니스트
예배에의 부름 Call to Worship ...엠편 1:3-5...	인 도 자
* 기 원 Invocation .....	인 도 자
* 찬 송 Hymn .....3(2).....	다 합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다 합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93(새해 1)...	다 합 께
송 영 Doxology .....	다 합 께
기 도 Prayer .....	말 은 이
찬 송 Hymn .....550(248)...	다 합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히13:12-16, 합3:2...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	다 합 께
봉헌 Offering .....	다 합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	다 합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	인 도 자
찬 양 Anthem .....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	다 합 께
설 교 Sermon ...“거룩한교회 민족의 구원선 되게 하소서”...	이종윤 목사
성찬식 Holy Communion .....	집 례 자
* 찬 송 Hymn .....539(483)...	다 합 께
* 축 도 Benediction .....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	다 합 께

목 도 .....	다 합 께
성 시 .....	인 도 자
찬 송 .....	다 합 께
기 도 .....	윤성남 집사
성 경 .....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어느 때까지나이가?” ...	설 교 자
* 찬 송 .....	다 합 께
* 축 도 .....	설 교 자
* 주기도송 .....	다 합 께

##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인도, 설교: 장석남 목사

기 도 .....	박미혜 권사
성 경 .....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예수님을 만지고자” ...	설 교 자

##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본당 피아니스트: 홍혜란, 김영안, 박수강, 김복희

설 교 ..... 조원영 목사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엠편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박준호	박승기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호주	박수강	윤주일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 90:12)		
영어예배	예루살렘				지난주 성구			
수요 I 부								
수요 II 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 교 회 소 식

### ◆ 모 임

- 교구위원회모임(부교구장, 간사) / 6일(주) 3부예배 후
- 공동의회 / 6일(주) 찬양예배 후에 2018년 결산 및 2019년 예산 승인을 위한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 리브가전대회 임역원 모임 / 9일(수) 오후 12시 색동저고리(557-2205)
- 정기당회 / 9일(수) 수요예배 후 가이오실

### ◆ 알 림

-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9호  
에바다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
- 금주 수요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 신년감사예배 / 우리교회는 오늘 신년감사예배로 드립니다. 주일예배 시간에는 성찬예식을 거행합니다.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p>앞면에서 계속</p> <p>13. 의료 상담 / 이번주 상담은 김봉배(통증의학), 김관섭(영상의학)입니다. 주일 오전 10시10분 - 오전11시까지 다음주 상담은 이경진(성형외과), 최용준(한방)입니다. 1층 서적부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 전화 예약 010-2728-5939</p> <p>14.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310호) ※ 전화 예약 010-2376-3892</p> <p>◆ 장 례</p> <p>1.故 신화우 집사(15교구 김경희 권사의 부군, 신모란 집사의 부친) / 30일 별세, 1월1일(화) 천국환송예배</p>
---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867명	276명	188명	1,331명	128명

수입, 지출 내역보고(12/30)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12월 30일	헌 금	69,906,900	
	찬양운영비		80,000
	교회학교운영비		2,940,650
	성 례 비		117,500
	전 도 비		1,100,000
	행 사 비		510,000
	경 조 비		490,000
	출 판 비		780,000
	복리후생비		159,220
	통 신 비		7,600
	수도광열비		279,190
	차량유지비		498,820
	사무용품비		59,700
	소 모 품 비		158,980
	잡 비		522,000
	환경유지비		136,000
	수선유지비		394,230
	식당운영비		1,138,260
	합 계	69,906,900	9,372,150